

이기영 소설에 나타나는 식민지 근대 여성 양상*

최종녀**

|| 차례 ||

- I. 머리말
- II. 봉건과 근대의 혼재
- III. 식민지 근대 사회의 이면
- IV. 제국주의 모성론의 변용
- V. 맺음말

【 】

본고는 이기영 소설을 중심으로 일제가 실시한 식민지 지배 정책 및 일본에서 유입된 이념과 사상이 당대 개인·사회에 끼친 영향과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일제식 호적제도는 이분법적 성규범을 강화시켰고 다이쇼 데모크라시와 엘렌 케이 사상에 영향을 받은 자유연애는 도덕적 해이 현상을 불러일으켰다. 지식인 여성은 일제의 현모양처 교육목표로 인해 보수적이며 수동적인 가치관을 갖게 되지만 근대의 표상인 공장에서 경제적 자립과 독립적 자아의식을 가지게 된다. 애정에 한정되어 있던 남녀관계 의식은 콜론타이 연애관의 영향을 받아 동지적 새로운 평등관계를 갖게 되고 쟁의를 성공적으로 이끈다. 제국주의 모성론은 자식을 위한 미래 지향적 가치관이란 신 모성상을 제시하고, 경제적 자립은 여성을 주체적이며 진취적인 여성으로 거듭나게 하였다.

일제의 식민지 정책과 일본에서 유입된 이념과 사상은 식민지 조선에서 길항과 갈등을 통한 해계모니 투쟁을 거듭하면서 재구축되어 변주되고 있다.

* 본고는 2018년 한민족어문학회 전국학술대회(제327차)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아울러 학술대회에서 지정토론을 맡아주신 심영덕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영남이공대학교 강사

주제어 : 이분법적 성규범, 자유연애, 근대교육, 제국주의 모성론

I. 머리말

우리 근대사는 1910년 8월 15일 국권피탈 이후부터 1945년 8·15광복에 이르기까지 35년 식민통치시기로 착취와 탄압으로 점철되어 있다. 일본은 식민지 조선인들에게 저항의 대상이자 반드시 타도해야 할 대상이었다. 그러나 우리보다 먼저 서구 문물을 수용하고 경험한 일본의 근대적 사상과 이념은 우리 문학 속에 투영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은 식민지 조선에 통치기구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1910년대 무단통치시기(1910~1919), 1920년대 문화통치시기(1919~1931), 1930년대 이후 민족말살정책 및 병참기지화(1931~1945)로 구분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일제가 실시한 식민지 지배 정책 및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이념과 사상이 당대 사회적 상황과 여성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문학 작품을 통해서 관계사적 접근을 하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문학은 비록 개개의 작품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의 자율성과 자족성을 지니고 있는 까닭에 그것만이 지닌 체계, 그것만이 독자적으로 제시하는 세계를 가질 수도 있겠으나 그 역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인간 그 자체가 역사적·사회적 존재인 까닭으로 역사성을 반영할 수밖에 없¹⁾다. 작가는 역사적·사회적 주체로서 작품이 생산된 당대 사회적 상황을 직시하게 되고 단지 형상화하는 데 머물지 않고 대변자이자 비판자로서 작품에 구현하게 된다.

1) 오세영, 『문학 연구 방법론』, 시와 시학사, 1993, p.9.

이기영은 ‘체험 작가’로 명명이 될 정도로 체험적 요소를 작품의 소재로 형상화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리얼리즘 작가로서 일제하 식민지 조선인들의 현실을 밀도 있게 형상화한 작가로 평가 받고 있다. 그의 작품 속에는 봉건 의식과 식민지라는 상황 속에서 여성이 겪고 있는 현실을 중심 사건으로 등장시켜 여성문제를 공론화하고 있어 당대 여성의 현실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기영 소설에 등장하는 서사 담론을 중심으로 당대 식민지 정책과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이념과 사상이 여성들의 삶과 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²⁾ 이를 위해 이기영 작품 중 여성인물이 주인공이거나 중요 인물로 등장하는 작품을 선정하고자 한다. 이들을 통해서 식민지 조선의 여성의 현실을 작가가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어떠한 서사담론을 재현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이기영 작품 중 1905년부터 1925년까지 일본에서 일어난 다이쇼 데모크라시 분위기와 여성해방운동의 사조인 엘렌 케이 사상이 유입된 1920년대 시기 작품인 『옴바의 秘密片紙』를 살펴보겠다. 이 작품은 등단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작가의 체험적 요소를 적용하여 여성의 부당한 현실을 여성 인물이 폭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음은 1930년대 프로문학 대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는 『고향』을 통하여 식민지 근대 사회의 이면이 당대 여성들에게 어떻게 변용되어 서술되고 있는지 알아보겠다.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윈터 마을은 이기영의 고향 마을의 모습이 형상화 되었으며 주인공

2) 이기영 작품에 나타나는 여성문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이기영의 유교적 여성관과 사회주의 이념에 한정하여 여성문제를 고찰하고 있다. 둘째는 여성문제를 시기별로 알아본 연구에는 작가의 여성의식에 집중하여 시대적 상황 및 여성의 현실은 간과하였다.

희준에게는 작가의 삶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다.³⁾ 또한 『고향』에는 30여 명의 여성인물이 등장하고 있으므로 193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여성들의 삶과 의식의 변화를 살펴보는 데 유용하다. 마지막으로 1940년대 『생활의 윤리』를 통하여 일제가 식민지 조선의 여성에게 실시한 ‘제국주의 모성론’을 정면으로 거부하지 않으면서 여성이 아닌 인간으로서 추구해야 하는 주체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가치관을 여성인물들을 통해 어떠한 양상으로 그려지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⁴⁾ 이들 세 작품의 분석은 식민지 근대 시기 여성들의 현실과 의식의 변화를 살피는 계기가 될 것이다.

II. 봉건과 근대의 혼재

우리나라는 식민주의적 침략의 시발점인 1876년 2월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난 후 개항 정책을 취하게 되면서 수신사나 신사유람단의 일원으로 관비 유학생 과견과 사비 유학생⁵⁾이 급증하게 되었고 이들에 의해 국내에 신문물이 적극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한다.

일본 유학생들은 일제의 국권피탈 부당함을 비판하고 독립을 위한 해결

3) 박홍배, 「이기영의 장편소설 연구」, 동아대 박사논문, 1993, pp.15-19 참조.

4) 1917년 발표된 우리나라 최초 현대소설 이광수의 『무정』은 계몽사상 측면에서 전통적 가치관을 부정하고 근대문명에 대한 동경을 그리고 있어 논의 대상으로 적합하지 만 본고에서는 이기영 소설만으로 한정해서 서술하고자 한다.

5) <표 1> 일본 유학생 수(1897-1911) 조선유학생학회, 『日本留學生史』, 『學之光』 6, 1914, p.204.

	1897	1899	1900	1901	1903	1904	1905	1906	1907	1908	1909	1910	1911
기존	150	161	152	141	140	148	102	197	430	554	702	739	595
新渡	160	2	6	7	12	37	158	252	153	181	103	147	5
합계	310	163	158	148	152	185	260	449	583	735	805	886	600

책으로 일본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던 다이쇼 데모크라시⁶⁾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⁷⁾ 다이쇼 데모크라시는 정치, 사회 체제로 정착하지 못하고 군부를 중심으로 한 군국주의 세력이 등장하면서 쇠퇴하였지만 양국의 근대 지식인들에게 새로운 근대적 사고와 문화를 인식하게 하고 스스로 내면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⁸⁾ 역할을 하게 된다.

엘렌 케이 자유연애 사상⁹⁾은 봉건적 가족제도 아래서 연애가 터부시되고, 자유이혼 등도 상식을 벗어난 것으로 간주되었던 당시 일본 여성들에

6) 일본은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의 승리로 일등국 의식이 고양되는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1912년에 다이쇼 천황 요시히토(嘉仁)가 메이지 천황의 뒤를 이어 즉위했다. 어린 시절 뇌막염을 앓아 병약한 천황의 이미지가 있었던 다이쇼 천황은 1921년부터 황태자 히로 히토(裕仁)에게 섭정을 맡기고, 26년에 사망했다. 1910년대와 1920년대는 일본 사회의 다양성과 긴장, 경제적 호황과 장기침체가 혼재되어 있는 시대였다. 일본은 이 시기를 다이쇼 천황의 연호를 사용하여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대라 부른다. 유지아, 「1910-20년대 일본의 다이쇼 데모크라시와 제국주의의 변용」, 『한일관계사연구』 57, 2017, pp.433-434 참조.

7) 조선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던 일본지식인들 중 다이쇼 데모크라시론의 핵심이론가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는 김우영, 장덕수 등을 여명회, 신인회와 같은 대표적 지식인 조직의 활동에 참여시켰다. 요시노 사쿠조, 우치무라 간조 등의 유명 지식인들은 유학생단체 행사의 연사로 초대되었다. 유학생들 스스로 대학의 여타 수업보다 다이쇼 데모크라트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회고할 정도로 그 영향은 지대하였다. 이태훈, 「1910-20년대 초 신지식층의 민주주의 인식과 현실활용 - 일본유학생과 동아일보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56, 2017, p.74 참조.

8) 이호규 외, 「다이쇼 데모크라시와 한·일 근대 작가의 개인주의적 주체 비교 연구 - 염상섭과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비교를 통해」, 『한국문학논총』 54, 2010, pp.210-211 참조.

9) 엘렌 케이는 연애란 종교와 마찬가지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강한 힘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완전한 사랑이 있는 커플만이 결혼할 수 있으며 그들의 사랑에 의한 결혼은 우수한 이세를 낳는다고 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한 것이 아니므로 사랑이 식으면 결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이혼도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법적 결혼이라 해도 생명 없는 연애로 유지되는 부부는 부도덕하다고 했다. 천성림, 「모성의 발견 - 엘렌케이와 1920년대의 중국」, 『동양사학연구』 87, 2004, pp.196-197 참조.

게 큰 방향을 일으키게 된다. 엘렌 케이의 자유연애론은 삼중지도, 칠거지악 등 봉건적 질서에 억압당해 온 식민지 조선 신여성들에게 일종의 여성 해방이자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의미했다. 신여성들은 개인의 인격 존중, 개성의 자각, 여성 해방으로 인식된 자유연애를 근대적 이상¹⁰⁾으로 삼으며 새로운 가치관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1920년대는 일본뿐만 아니라 식민지 조선에서도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과 함께 경제적·사회적 변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던 시기였다. 3·1 운동을 기점으로 촉발된 민족·사회운동은 근대교육을 받고 돌아온 일본 유학생을 주축으로 문단이 형성되고 신문, 잡지 등을 통해서 새로운 이념과 사상이 식민지 조선에 전파되기 시작한다. 그 중에서 일본 유학을 다녀온 신여성들은 『新女子』 등의 잡지를 발간하고 봉건에서의 여성해방과 자유연애를 여론화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게 된다.¹¹⁾ 하지만 일본에서 건너온 이념과 사상은 ‘근대’라는 이름으로 지식층들에게 문화적 변용의 형태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 장에서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과 함께 일본에서 건너온 이념과 사상이 식민지 조선에서 사회적으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겠다.

이기영은 1922년 4월 일본 동경으로 유학을 갔다가 1923년 9월 1일 발

10) 김은희 외, 『신여성을 만나다』, 새미, 2004, p.171 참조.

11) 신여성은 남성중심의 전통적인 인습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그 당시의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권리운동, 남녀평등에 대한 적극적인 여성해방 운동에 참여하는 여성으로 정의되었다. 신여성은 시부모에게 절대 복종하는 현모양처의 입장에서 자유평등과 자유연애를 외치는 여성상, 즉 여권존중과 여성독립 확립에 앞장서는 새로운 여성상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었다. 따라서 이전의 봉건적 시대와는 전혀 다른 사회적 역할이 강조되었다. 여성의 사회적인 역할이 강조되었다는 점은 남성과의 관계를 통해서 비롯되는 어머니, 아내, 며느리와 같은 가족 공동체 관념으로부터 벗어나, 개별적인 주체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 독립 주체로서의 자기 자신을 찾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경규, 『일제강점기 신여성과 일본유학에 관한 고찰』, 『일본근대학연구』 58, 2017, pp.226-227.

생한 관동 대지진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다. 1924년 7월 『개벽』의 창간 4주년 기념 소설·회곡 현상 공모전에 응모하여 단편소설 『옴바의 秘密片紙』¹²⁾가 3등으로 당선된다. 이 작품은 작가의 상상의 소산물이 아니라 당대 사회적 분위기를 대변하고 있다. 이기영은 『나의 처녀작을 어떻게 썼는가』¹³⁾에서 자신이 세 들어 살고 있는 주인집 딸들이 “저의 부모보다도 오빠를 더 무서워하”고, “그가 이 집에서 독판을 치기 때문”에 “오래 비 앞에서 기를 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작가는 “전도사의 가정에서 태어난 이 집 아들은 주일마다 예배당에 다니고 아침저녁으로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것은 습관적 형식에 불과하”고 “봉건 유습”이라 생각한다. 그는 “시대착오적인 남존여비의 사상을 가지고 여성을 희롱하려는 가짜 연애군들”과 “신여성과 여학생들 중” “자유연애”라는 이름으로 “불순한 애정관계를 맺는” “폐단”을 “사회적 문제로 취급해”서 작품을 구상하게 된다. 작가는 『옴바의 秘密片紙』에서 ‘마리아’라는 여성인물을 전면으로 내세워 이를 비판하고 있다.

마리아는 1920년대 전체 여성 인구 92%가 문맹¹⁴⁾인 현실에서 중산층 가정이며 여학교를 다니는 여학생으로 등장한다. 그녀의 “마리아”라는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평등사상을 근간으로 여성 해방에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독교인이다. 이처럼 마리아를 둘러싼 외적 상황은 근대적이지만 그녀의 삶을 지배하는 이념과 사상은 이분법적 성규범이었다.

마리아 어머니는 마리아가 잘못하면 “게집애가 칠칠찬키두 하다”라고

12) 본고에서는 1937년 2월 사해공론사에서 발행한 월간종합문예지 『四海公論』에 실린 『옴바의 秘密片紙』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13) 이기영, 『나의 처녀작을 어떻게 썼는가』, 『청년문학』, 1964.12.

14) 변정화, 『이기영 작품에 나타난 여성현실과 그 전개방식-초기 경향소설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29, 1990, p.64.

질타하고 오빠는 “사내가 엇더타”라며 그냥 넘어간다. 그녀는 딸과 아들을 생물학적 성(性)인 남성과 여성으로 이분화하고 딸에게만 집안일을 시키는 인물이다. 마리아 어머니의 인물 형상화는 관습적인 남존여비 의식을 기저로 하는 이분법적 성규범과 일제식 호적제도인 ‘조선민사령’이 원인으로 작용한다.

식민지 시기에는 호주 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일제식 호적제도가 식민지 조선에 이식됨과 동시에 호주인 남성은 가부장으로서 사법상 거의 주재자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조선시대 호주는 집안의 어른이라는 상징적 존재였으며, 실질적으로 가장의 의무와 권리는 법률이 직접 규정하지 않고 형벌법에 직·간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식민지 시기 새로운 호적제도 하에서 호주는 가족에 대하여 거의 무제한적인 권리를 인정받고 있었다.¹⁵⁾

‘조선민사령’에 따라 상속에서 장남은 전 재산의 절반을 가졌고 나머지 절반은 차남 이하 남자 형제들이 균등하게 나누었다. 하지만 딸이나 처에게는 분재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친정에 대한 상속권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결혼한 여자는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일, 보증을 서는 일, 부동산 또는 중요한 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할 때는 남편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뿐만 아니라 결혼할 때 갖고 온 재산도 남편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조선민사령’에 의해 여성은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닌 법적인 무능력자로 전락하였다. 이러한 제도의 영향권 아래에서 경제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마리아 어머니는 남성이자 장남인 아들을 편애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¹⁶⁾이혼제도의 경우에도 축첩한 사실만으로는 이혼이 성립되

15)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연구실, 『우리 여성의 역사』, 청년사, 1999, p.277.

16) 최중녀, 『이기영 소설의 여성 의식 변모 양상』, 대구가톨릭대 박사논문, 2018, p.40.

지 않았다. 이혼을 하였더라도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리하여 보증, 부동산 등의 권리행사에서도 친족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이러한 호적제도는 가족 내에서 여성의 지위가 약화시키고 남성에게 종속적인 지위로 고착화 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¹⁷⁾ 기성세대인 어머니의 이분법적 성규범은 봉건적 남존여비의식과 함께 여성을 법률적 무능력자로 만든 일제식 호적제도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이쇼 데모크라시와 엘렌 케이 사상은 관습적 봉건 의식이 잔존한 상황에서 마리아 오빠를 “레베방”에서는 “남녀동등”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는 근대적 사상을 가진 인물로 집에서는 남성으로서 여동생에게 억압과 지배를 가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

1920년대 ‘연애’는 근대를 모방하는 표상으로 절대적인 동경의 대상이었다. 자유연애는 남녀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지와 동등한 관계를 바탕으로 한다는 사고로 인해, 연애에 대한 동경은 ‘연애 자체를 연애’하는 강박적 관념에 의해 추동되고 있었다. 즉 연애의 실체와 무관하게 연애 자체가 연애의 대상이 되어 추구되는 형태였던 셈이다.¹⁸⁾

마리아 오빠는 영순에게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옥진과는 키스를 하는 등 과감한 애정행각을 벌이는 이중연애를 하지만 동생인 마리아의 폭로로 발각되고 만다. 작가는 남성중심이데올로기와 “여성을 희롱하려는 가짜 연애”의 현실을 오빠의 남성중심사고와 이중연애로 서술하고 있으며 이를 여성인 마리아의 시선을 통해 비판하고 있다.

『옴바의 秘密片紙』에서는 봉건적 가부장제 영향과 일제식 호적제도인 ‘조선민사령’에 의해 이분법적 성규범이 강화된 상황에서 다이쇼 데모크라

17)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 연구실, 같은 책, pp.277-283.

18) 임정연, 『식민지 지식인의 연애와 일상: 1920년대 연애서사의 담론적 특성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24, 이화여대한국어문학연구소, 2007, pp.25-26.

시와 엘렌 케이 사상은 빛나간 자유연애로 변용되어 그려지고 있다. 또한 이기영은 작가로서 시발점인 등단작에서부터 여성을 향한 불합리한 현실을 비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여성인물이 각성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여성해방을 위해서는 여성의 의식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작가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Ⅲ. 식민지 근대 사회의 이면

이기영의 대표작으로 평가 받고 있는 『고향』¹⁹⁾은 1933년 11월 15일부터 1934년 9월 21일까지 《조선일보》에 연재된 소설이다. 이 작품은 지주와 소작인과의 계급투쟁을 심층적으로 그리고 있다. 본고에서는 작품 전반에서 주동적 인물로 서술되고 있는 안갑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안갑숙은 근대교육을 받은 여성인물이면서 제사공장에 노동자로 그려지고 있다. 그녀를 통해서 1930년대 식민지 근대교육의 이면과 여성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안갑숙은 원터 마을의 신흥지배계급인 마름 안승학의 딸로 서울에 있는 여자보통고등학교를 다니는 인물이다. 그녀는 남자로서 호감을 갖고 있던 경호에게 강제로 ‘처녀성’을 잃게 되자 아버지에게 들킬까봐 두려워하고 “나의 광명은 벌써 등 뒤로 지나갔다”며 비판하고 첩을 네 명이나 둔 아버지의 성향을 유전 받아서 “음란한 여자”라고 자책한다. 경호가 강압적으로 접근할 때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사실에만 후회한다. 갑숙은 항거불능 상황에서 정조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경호에 대한 원망보다는 자신을

19) 본고에서는 1936년 한성도서주식회사에서 발간한 『현대조선장편소설전집』, 『고향』 제1권(상)·제2권(하)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책망하는 인물이다. 또한 김희준을 사모하지만 “그이는 벌써 아들까지 두었다지 그리고 나도 처녀가!……”라며 정조를 잃었다는 것과 그가 유부남이란 현실에 다가가지 못한다. 갑숙이가 지식인이면서도 보수적이며 수동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된 배경에는 관습적 봉건 의식과 함께 당대 여성에게 행해지는 근대 교육이 그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최초의 관립 근대여성교육기관은 대한제국정부가 고등여학교령을 공포하고 1908년 4월 설립한 한성고등여학교이다.²⁰⁾ 그러나 1908년은 일제의 대한제국 침탈이 가속화 되던 시기로서 교육과정은 식민지 교육정책이 내포될 수밖에 없었다.²¹⁾ 여성교육이 본격화된 것은 1911년 공포된 제 1차 ‘조선교육령’에 의거한 ‘여자고등보통학교규칙’이었다. 이 규칙에는 여자에게 고등한 보통교육을 하는 곳으로 부덕을 기르고 국민 된 성격을 도야하며 그 생활에 유용한 지식과 기능을 가르친다고²²⁾ 하였다. 여고보용 교과서에서는 전통적인 여필종부의 도를 가르치거나 정절과 부덕 있는 여성을 소개하고 있다. 반면 남고보용 교과서에는 한문의 비중을 크게 높여 인문고전교육을 강화하고 학업의 성취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근대적인 제도권 안에서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지식교육, 고등교육, 직업교육은 도외시하고 가정에서 순종과 정조 등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여성상 즉 ‘현모양처’²³⁾상이

20) 최초의 근대여성교육기관은 1886년 선교사 스크랜튼이 세운 사립 초·중·고등과정 이화학당이고 최초 민간 사립 여학교는 1898년 설립된 중등과정 순성여학교이다.

21) 정치적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화하는 데 있어 여성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양치현모주의 여성교육을 실시하였다. 민족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지식교육을 배제하였으며, ‘여자에게 적절한 실제적 지식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가사, 재봉, 수예 등의 기예교육에 치중을 하였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닷컴, 『문화원형백과 신여성문화-최초의 여학교』, p.2004.

22) 이송희, 『한말, 일제하의 여성교육론과 여성교육정책』, 『여성연구논집』 16, 2005, p.17.

23) 현모양처에 대한 해석은 ‘현모양처=유교적 여성관’, 일제에 의해 의도적이고도 조직적으로 이식된 ‘여성교육 이데올로기’, 근대적인 여성상으로 나뉘고 있다. 조선시대의

여성교육의 주요 목표였음을 말해준다.²⁴⁾

제 2차 조선교육령(1922~1938)에 제시된 신교육령에서 여성교육은 “여학생의 신체적 발달과 부덕(婦德)의 함양에 유의하여 덕육(德育)을 실시하고 생활에 유용한 지식과 기능을 교수하여 국민으로서의 성격을 양성하고 일본어를 숙달”²⁵⁾하는데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부덕을 기반으로 일제가 원하는 식민여성상을 주입하는 교육 환경에서 갑숙이가 능동적인 사고방식은 갖는 데는 무리가 있었을 것이다.

갑숙은 경호와의 일이 아버지에게 발각되자 도피의 수단으로 가출하여 제사공장 여공이 된다.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독립적인 삶을 산다는 의미이다. 193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여성이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은 절박한 여러 가지 이유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이 시기 지식인 여성이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쉽지 않는 선택이었다. 1930년대 여학교 졸업자들의 진로를 보면 전업주부를 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²⁶⁾ 중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조선인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은 많지 않았고, 전문직은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 여성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서 이들의 사회진출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사회진출이 좌절된 여학생들은 졸업 후 진로를 ‘가정’으로 한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 외 졸업자는 소수의 전문직과 하급 서비스 직종을 점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고보도 졸업하지 않은 식민지

이상적인 여성상은 현모양처가 아니라 ‘烈女·孝婦’였다. 홍양희, 『일제시기 조선의 여성교육』, 『한국학논집』 35, 2001, pp.220-223.

24) 이수연, 『일제 식민지 시기 여성교육과 사회진출』, 전남대 석사논문, 2010, p.7.

25) 김재우, 『조선총독부의 교육정책에 관한 분석적 연구』, 한양대 박사논문, 1987, pp.66-67.

26) 1931년 여고보 졸업생의 현황과 진로 자료에서 진로가 ‘가사 종사자’가 전체 60.0%나 달했고, 상급학교 진학자는 31.1%, 취직자는 6.6%로 나타났다. 공제옥 외, 『식민지의 일상, 지배와 균열』, 문화과학사, 2006, p.509.

여성인 갑숙이가 전문적인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²⁷⁾

옥희(갑숙)²⁸⁾는 친구 인순이가 일하고 있는 제사공장에서 함께 일하며 부당하게 쫓겨난 여공의 복직과 “대우 개선” 등을 요구하는 노동쟁의를 일으킨다.

1920년대 일본의 제사업자들은 일본에 비해 싼값에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에 조선에 대규모 제사공장을 세우게 된다. 제사공장 취업은 깨끗한 공장의 환경, 전체 여성의 8%정도가 보통학교 졸업의 교육수준, 높은 경쟁률로 인해 선망의 대상이 된다. 제사여공들은 봉건적인 가치관을 가진 가족에서 벗어나 남성들처럼 경제적 활동을 하게 되면서 주체적인 자아의식을 가지게 된다. 근대적 자아의식과 자신과 같은 부류와의 공동생활, 그리고 공동생활을 통한 정보교환은 이들에게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스스로 노동쟁의를 일으킬 수 있는 충분조건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조건은 사회적 위상에 비해 상반된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쟁의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여공들은 일본인 감독과 교사 태도 개선 및 해고, 작업시간 단축, 대우개선, 체불 임금 반대, 강제저축폐지, 단오, 음력설에 휴업할 것 등 무리한 노동조건 개선 등²⁹⁾을 요구하게 된다.

인순이의 공장 현실에 대한 독백은 식민지 시대 여성 노동자의 현실이었다.

“이렇게 하루를 시달리고 나면 두손이 흉당무처럼 익고 눈은 아물아물 하

27) 최중녀, 같은 논문, p.62.

28) 갑숙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제사공장에 들어가기 위해 ‘옥희’로 개명한다.

29) 윤정란, 『식민지시대 제사공장 여공들의 근대적인 자아의식 성장과 노동쟁의의 변화 과정』, 『담론 201』 9, 2006, pp.40-59 참조.

고 귀에서는 전보때 우는소리가 나고 목에는 침이 마르고 등허리는 붙어 지는 것 같이 아프다. 수족은 장작같이 뻗뻗해서 도무지 자유를 듣지 않았다. 손등은 마른논 터지듯 터졌다.

이것은 참으로 노동XX이 아닌가!

어린 제사 여공들은 작업환경과 장시간의 노동으로 제대로 발육³⁰⁾하지 못하였고 수명이 단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³¹⁾

옥희(갑숙)와 경호, 희준 사이의 미묘한 연애는 그녀가 사회의식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남녀 간의 감정적 사랑이 아닌 ‘동지’라는 이념적 관계로 변한다. 동지적 관계란 남녀 간의 관계에서 육체적인 사랑의 관계만이 아닌 새로운 평등관계를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옥희(갑숙)의 의식 변화는 1920년 대 말엽 식민지 조선에 본격으로 유입된 콜론타이 연애관³²⁾의 영

30) 당시 일본에서 여학생과 제사여공 간의 체중, 신장에 대한 비교 자료를 보면 13세에 서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해가 갈수록 발육이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윤정란, 같은 논문, p.56.

31) 이기영의 『땅』에 등장하는 광바위 동생 ‘분이’와 강경애의 『인간문제』에 등장하는 ‘선비’도 제사공장에서 일하다가 병으로 죽음을 맞는다.

32) 콜론타이 이론은 1927년, 일본에서 콜론타이의 대표적 저서인 『붉은 사랑(Vasilisa Malgina)』이 마쓰오 시로(松尾四郎)에 의해 『붉은사랑(赤い戀)』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이후부터 일본에서 유행하던 조선인들이나 일본에서 화제가 되는 논의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조선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수용되기 시작한다. 콜론타이와 관련된 당시 조선의 논의들은 콜론타이가 문제제기했던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이상적인 이성애 관계라든가 여성의 사회진출 방식보다, 사회주의적 연애란 정조를 경의시하는 것이 아니라 강변하기에 바쁘거나, 콜론타이의 이론을 연애 같은 사적인 일보다 혁명과 같은 대의에 여성들을 복무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조선의 사회주의자들에게는 새로운 이성애 관계를 상상할 감정을 촉진시키기는커녕,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위협으로, 혹은 연애 같은 사적인 임무보다 공적인 임무를 더 강조하는 보수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수용된다. 일본에서 1920년대 중반 이후 상당한 인기를 끌었던 콜론타이의 논의가 1920년대 말엽에 조선에 건너온 정확한 경위는 알기 어렵다. 다만 일본 책을 취급하던 서점에 콜론타이의 책이 유입되었을 가능성과, 카프 진에

향으로 볼 수 있다. 콜론타이 연애관은 여성이 경제적 독립과 사회적 지위를 갖추면 양성평등에 도달할 수 있고, 이상적인 연애는 남녀가 사상적으로 연대한 동지적 사랑이라는 방향으로 수용되었다.³³⁾ 옥희(갑숙)는 희준의 도움으로 인순, 경호와 함께 노동쟁의를 성공으로 이끌고 원터마을의 소작쟁의에도 적극적으로 조력하게 된다.³⁴⁾

『고향』에서는 근대적 교육을 받고 있는 지식인 여성이 일제의 식민지 교육에 의해 보수적이며 수동적인 의식을 갖게 되지만 근대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공장에 들어가면서 열악한 노동현실에 자각하여 노동쟁의를 일으키는 인물로 성장한다. 또한 사랑이 중심인 자유연애에서 탈피하여 식민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남녀관계를 동지적 관계로 승화시켜 노동쟁의와 소작쟁의를 성공으로 이끈다. 그러나 갑숙은 작가에게 잔존해 있는 남성중심이데올로기에 의해 근대교육을 받은 인물이면서도 지식인 남성 희준의 도움을 받아 의식이 성장하고 쟁의에서도 남성을 조력하는 인물로 머물고 만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옴바의 祕密片紙』의 각성하는 여성

서 활동하던 서평제가 이 책이 유명하다는 소문을 듣고 우연히 소개 하게 되었을 가능성만을 추측해볼 수 있을 뿐이다. 배상미, 『식민지 조선에서의 콜론타이 논의의 수용과 그 의미』, 『여성문학연구』 33, 2014, pp.299-304 참조.

33) 최중녀, 같은 논문, p.71.

34) 작품에서는 노동쟁의 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지 않고 해결되었다는 설명만 짧게 제시되고 있다. 이상경(1994)은 이에 대해 두 가지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첫 번째는 『고향』이 《조선일보》에 1933년 11월 15일부터 1934년 9월 21일까지 연재되었는데, 이 중 “연재본 213회(1934년 8월 3일) 처음에 2회분이 빠졌다”는 견해이다. 여공들의 파업과 관련된 장면이 검열로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p.801). 두 번째는 『고향』이 창작된 시기는 1930년대이지만 시간적 배경은 1920년대 중반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견해이다. 1920년대 중반은 “대중운동에서 노동동맹의 초보적 단계”였는데 이러한 사실이 작품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들어 이상경은 “안갑숙의 교육계로 소작쟁의가 일시적으로 승리한 것도 초기 단계의 운동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최중녀, 같은 논문, p.68.

에서 『고향』에서 행동하는 여성으로 변모되었다는 것은 여성에 대한 작가 의식과 당대 여성의식이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IV. 제국주의 모성론의 변용

이기영의 『생활의 윤리』³⁵⁾가 출간된 1942년은 일제의 침략전쟁으로 인해 파시즘 체제가 강화되면서 치안유지법으로 인해 작가들에 대한 탄압은 한층 고조되어 신념에 근간을 둔 작품 활동이 제약을 받는 시기이다. 대부분의 프로 작가들은 사회적 실현 모색이 차단된 상태에서 점차 전향의 길을 걷게 된다. 이기영 같은 경우에도 검열을 의식하면서 창작활동을 한 까닭에 당시 식민지 조선의 현실에 대한 편집한 묘사가 불가능했다. 이에 작가는 “국책문학이 가지는 홍보계몽이라는 체제 권력의 주문을 정면으로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그때까지 해오던 자기 나름의 순수한 계몽담론을 편승시켜 재문맥화하는 방식 이를테면 위장협력”³⁶⁾ 글쓰기 형태인 『생활의 윤리』를 출판하게 된다. 이 작품은 1930년대 후반부터 국가총동원령이 전개되면서 식민지 조선에 대한 전방위 수탈과 탄압에 대한 현실은 언급되지 않고 흥미 위주의 연애사가 전개되고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통속소설로 분류하여 긍정적 인물 이상화로 작가의식이 구체화되어 나타

35) 『생활의 윤리』는 단행본으로 1942년 대동출판사 초판본, 1944년 성문당에서 또 한번 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성문당본을 참조하였다.

36) 김홍식, 『일제말기 이기영 문학의 내부망명 양상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47, 2015, p.367. : 김재용은 (『협력과 저항』, 소명출판사, 2004, pp.45-46.)에서 일제말기 문학을 ‘협력과 저항’이라는 양극에서 접근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본고는 이기영의 『동천홍』(춘추 1942.2-1943.3), 『광산촌』(매일신보, 1943.9.23.-11.5), 『치녀지』(1944) 등은 친일문학 범주로 분류하고자 한다.

나지 않고 생산을 찬양하고 소비를 억제하라는 파시즘 이데올로기를 재현하고 있다는 등의 평가³⁷⁾를 내리고 있다.³⁸⁾ 그러나 작가가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면 작품 곳곳에서 당대 조선인들이 추구해야 할 윤리의식과 사고방식 등의 계몽담론을 읽어 낼 수 있다.

1930년대 말기에 접어들면서 일제의 파시즘 체제에 영합하는 ‘제국주의 모성론’이 등장한다. 일제는 1937년의 중일전쟁, 1941년의 태평양 전쟁으로 이어지는 침략전쟁으로 준(準) 전시체제 하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만 중요시하던 현모양처론은 ‘제국주의 모성론’으로 바뀐다. 제국주의 모성론에서는 전쟁지원을 위한 황국신민을 출산하고 키우는 모성으로서의 역할과 실제적인 가족 부양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현모양처론과 제국주의 모성론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공통점이 더 컸다. 즉 둘 다 일제의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식민지 체제 또는 전시 체제에 여성을 동원하기 위한 논리였다.³⁹⁾

응주 어머니는 남편의 반대와 주변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 부인의 경제적 도움을 받아 딸인 응주가 서울에서 공부할 기회를 만들어 준다. 돈 많은 병태가 처가에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며 응주를 자신의 후처로 달라는 제안에 남편이 넘어가자 밤길을 달려가 위협에 처한 딸을 구해낸다. 자식을 위한 모성과 교육자 역할을 강하게 연출하고 있는 응주 어머니를 보면 일제가 식민지 조선 여성들에게 요구하는 ‘제국주의 모성론’을 선전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응주 어머니의 딸을 위한 미래 지향적인 가치관은 일제가 요구하는 모성담론과는 다르다.

37) 이선옥, 『이기영 소설의 여성 의식 연구』, 숙명여대 박사논문, 1995, p.118. ; 이원동, 『일제강점기 이기영 소설의 담론적 실천 연구』, 경북대 박사논문, 2005, p.137.

38) 최중녀, 같은 논문, pp.85-86.

39) 최중녀, 같은 논문, p.25.

가) 반도의 일반 부인은 오랜 사회적 관습으로 늘 내방에 있는 편이 많아서 시대의 변천과 일가 경제의 합리화에 대하여도 자칫하면 무관심한 태도에 처하기 쉬운데 현대는 이미 일대 전회를 하고 있어 부인이라고 해도 언제나 소극 무자각한 생활을 감수하고 있을 것 아니다…… 가족제도의 원활한 운용으로 신분상 법률상의 것은 제외하고 남녀가 모두 경중의 차는 없다. 또 戰地에서 모든 고난을 다하는 황군 장병에게 부인의 총후 후원이 얼마나 힘차게 용기를 돋두는가는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비상시 국가의 부인으로서의 중대 사명을 자각하여 각오를 새롭게 할 것을 소망하는 바이다.⁴⁰⁾

나) 모친의 가리칠 열성이 없었다면 그역 하잘것없는 산골 계집애로 파묻혀 벌써 몇해전에 밑머누리로 주었든지 아무렇게나 시집을 보냈을것이라는 점이였다. 그것은 또한 지금세상은 공부를 잘하기만하면 아무리 여자라도 돈버리를 잘하고 남과같이 살수있다는-말하자면 이해타산(利害打算)으로보는 공리심(功利心)이 앞서게도 하였다.⁴¹⁾

가)를 살펴보면 일제가 요구하는 식민지 조선의 여성상은 ‘家’의 역할을 중요시하면서 “황군 장병에게” “총후 후원”을 하고 비상시에는 “국가의 부인으로서”의 역할이었다. 나)에서 응주 어머니는 “공부를 잘하기만하면 아무리 여자라도 돈버리를 잘하고 남과 같이 살수있다는” 신념을 가진 인물이기 때문에 전시체제 여성을 동원하기 위한 논리로 해석하기에 무리가 있다. 오히려 전통적 모성상에서 탈피하여 미래 지향적 가치관을 가진 신모성상을 추구하고 있는 인물이다.

응주는 “산골 계집애로” “밑머누리”나 “아무렇게나 시집을” 갈 운명이었지만 여자도 공부를 해서 “돈버리를” 잘하면 남과 같이 살 수 있다는 어머니

40) 『지구절을 삼가 마저 반도 부인의 각성을 촉함 - 정신 총동원 조선연맹』, 『조선일보』, 1939.2.26.

41) 이기영, 『생활의 윤리』, 성문당, 1942, p.42.

의 신념에 의해 서울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과 함께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게 된다. 응주의 경제적 자립은 아버지의 봉건적 가부장제에 의한 강제 결혼을 무산시키고 가족들을 서울로 이사시켜 가장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자유연애로 준구에게 먼저 청혼을 하고 자신의 집에 와서 함께 살자고 제안한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은 삶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게 되면서 봉건적 가부장제를 붕괴시키는 역할을 한다. 남녀관계에서는 남성에게 존속되는 위치가 아니라 남성을 여성의 세계로 유도 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그러나 응주의 형상화 양상에는 두 가지 취사선택이란 명제를 던진다. 첫 번째는 ‘제국주의 모성론’이 헤게모니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무능한 가장인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족을 부양하고 남성인 준구에게 자신의 집에 들어오라고 하는 등의 가족 부양자 역할은 일제가 요구하는 여성상 설정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여성이 사회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경제적 자립, 봉건적 가부장제 대한 타파의식, 고난에 대해 투쟁할 수 있는 “뱃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응주라는 인물을 통해 역설 하고 있다. 즉 여성도 미래를 위해 주체적이며 진취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계몽담론을 피력하고 있다.

『생활의 윤리』에서는 응주와 응주 어머니의 주체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의식을 통해 일제가 요구하는 ‘제국주의 모성론’을 거부하지 않으면서 작가의 여성해방 계몽담론을 재문맥화하는 ‘위장협력 글쓰기’를 확인할 수 있다.

V. 맺음말

본고에서는 일제강점기 이기영 소설을 중심으로 1920년대, 1930년대, 1940년대 식민지 정책과 더불어 일본에서 유입된 이념과 사상이 식민지 조선 여성의 삶과 의식에 어떻게 변화되어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옴바의 祕密片紙』에서는 남존여비의 관습적 봉건의식이 ‘조선민사령’이란 일제식 호적제도와 결합하여 이분법적 성규범이 더욱 강화되는 현상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불어 일본에서 유입된 다이쇼 데모크라시와 엘렌 케이 사상은 이중적 성규범과 빗나간 이중연애를 하는 남성 인물을 그리고 있다. 작가는 일련의 현상들을 마리아 시각으로 풀어내감으로써 불합리한 사회 현상에 대해 여성인물이 각성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고향』에서는 근대 교육을 받는 지식인 여성이면서도 일제의 식민지 교육에 의해 보수적이며 수동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근대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공장에 들어가면서 열악한 노동현실에 자각하여 주동적으로 노동쟁의를 일으키는 인물로 성장한다. 사랑이 중심인 자유연애는 콜론타이 연애관의 영향을 받아 식민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남녀관계를 동지적 관계로 승화시켜 노동쟁의와 소작쟁의를 성공으로 이끈다.

『생활의 윤리』에서는 일제가 요구하는 ‘제국주의 모성론’을 거부하지 않으면서 여성도 미래를 위해 주체적이며 진취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계몽담론을 담고 있다.

이기영 작품 서사담론을 통해서 일제의 식민지 정책과 일본에서 유입된 이념과 사상은 식민지 조선의 여성들에게 길항과 갈등을 통한 헤게모니 투쟁을 거듭하면서 여성해방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이기영, 「옉바의 秘密片紙」, 『四海公論』, 1937.
 _____, 「나의 처녀작을 어떻게 썼는가」, 『청년문학』, 1964.12.
 _____, 『고향』 제1권(상)·제2권(하), 『현대조선장편소설전집』, 한성도서주식회사, 1936.
 _____, 『생활의 윤리』, 성문당, 1942.

2. 참고자료

- 공계욱 외, 『식민지의 일상, 지배와 균열』, 문화과학사, 2006, p.509.
 김은희 외, 『신여성을 만나다』, 새미, 2004, p.171.
 김재용, 『협력과 저항』, 소명출판사, 2004, pp.45-46.
 김재우, 『조선총독부의 교육정책에 관한 분석적 연구』, 한양대 박사논문, 1987, pp.66-67.
 김홍식, 「일제말기 이기영 문학의 내부망명 양상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47, 한국현대문학학회, 2015, pp.355-378.
 박홍배, 「이기영의 장편소설 연구」, 동아대 박사논문, 1993, pp.15-19.
 배상미, 「식민지 조선에서의 콜론타이 논의의 수용과 그 의미」, 『여성문학연구』 33, 한국여성문학학회, 2014, pp.299-330.
 변정화, 「이기영 작품에 나타난 여성현실과 그 전개방식 - 초기 경향소설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29, 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1990, pp.61-92.
 유지아, 「1910-20년대 일본의 다이쇼 데모크라시와 제국주의의 변용」, 『한일관계사연구』 57, 한일관계사학회, 2017, pp.431-467.
 윤정란, 「식민지시대 제사공장 여공들의 근대적인 자아의식 성장과 노동쟁의의 변화 과정」, 『담론 201』 9, 한국사회역사학회, 2006, pp.37-76.
 이선옥, 「이기영 소설의 여성의식 연구」, 숙명여대 박사논문, 1995, p.118.
 이원동, 「일제강점기 이기영 소설의 담론적 실천 연구」, 경북대 박사논문, 2005, p.137.
 이태훈, 「1910-20년대 초 신지식층의 민주주의 인식과 현실 활용 - 일본유학생과 동아일보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56, 한국사상사학회, 2017, pp.67-

100.

- 이경규, 『일제강점기 신여성과 일본유학에 관한 고찰』, 『일본근대학연구』 58, 한국일본근대학회, 2017, pp.223-234.
- 이송희, 『한말, 일제하의 여성교육론과 여성교육정책』, 『여성연구논집』 16,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2005, pp.187-221.
- 이수연, 『일제 식민지 시기 여성교육과 사회진출』, 전남대 석사논문, 2010, p.7.
- 이호규 외, 『다이쇼 데모크라시와 한·일 근대 작가의 개인주의적 주체 비교 연구 - 염상섭과 이쿠타가와 류노스케 비교를 통해』, 『한국문학논총』 54, 한국문학회, 2010, pp.205-242.
- 임정연, 『식민지 지식인의 연애와 일상: 1920년대 연애서사의 담론적 특성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24, 이화여대한국어문학연구소, 2007, pp.25-39.
- 조선유학생학우회, 『日本留學生史』, 『學之光』 6, 1914, p.204.
- 천성림, 『모성의 발견-엘렌 케이와 1920년대의 중국』, 『동양사학연구』 87, 동양사학회, 2004, pp.187-220.
- 최중녀, 『이기영 소설의 여성의식 변모 양상』, 대구가톨릭대 박사논문, 2018.
-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연구실, 『우리 여성의 역사』, 청년사, 1999, p.277.
-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닷컴 『문화원형백과 신여성문화 - 최초의 여학교』, 2004.
- 홍양희, 『일제시기 조선의 여성교육』, 『한국학논집』 35,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1, pp.219-257.
- 『지구절을 삼가 마저 반도 부인의 각성을 촉함 - 정신 총동원 조선연맹』, 『조선일보』, 1939.2.26.

Abstract

A Study on the Modern Aspects of Women in
Lee Ki-Young's Colonial Novels

Choi, Jung-nyu

This paper examines the influence of Japanese rule, ideology, and concepts concerning individuals and society during the colonial period. It also examines Korean reactions by focusing on Lee Ki-Young's novels.

The Japanese family registry system strengthened the dichotomy of sexual norms and free love, which was influenced by the Taisho Democracy and Ellen Key, ideas, created a moral hazard. Intellectual women, who received modern education developed conservative and passive values from their education by being directed towards becoming a good wife and wise mother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However, they began to form independent self-consciousness as they become economically independent by working in the factories. This represented the modern age. Attitudes in men and women were limited to affection in relationships; however, influenced by the Kollontai love affair, a new comradely relationship of equality which successfully led to the dispute. The imperialist motherhood theory presented a future-oriented value for having children, yet the new image of motherhood and economic self-reliance transformed women into independent and progressive entities.

Japanese colonial policy and ideology and concepts were reconstructed and changed by the repeated struggle for hegemony through antagonism and conflicts in colonial Korea.

Key Word : dichotomy, free love, modern education, imperialism, Imperialist motherhood theory

최중녀

소속 : 영남이공대학교 강사

전자우편 : nuden1201@naver.com

이 논문은 2019년 1월 31일 투고되어
2019년 3월 1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9년 3월 11일 게재 확정됨.